

2012 1분기 터키 한류 동향 보고

터키(앙카라) 강인한 통신원

◆ 총평

한국과 터키는 지리적으로 유라시아 대륙의 양끝에 있는 먼 나라지만, 터키는 한류가 국제적으로 활성화되기 이전부터 한국에 대한 인지도와 긍정적인 관심이 유달리 강했던 나라이다. 한국전쟁에서 미국 다음으로 많은 군인을 파병해 ‘형제의 나라’라는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상 터키 사람들은 그 사실에 대해 그리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터키인들은 이러한 역사적 사실 보다는 1999년 터키 대지진의 대국민 성금모금과 2002년 한일 월드컵 3,4위전, 그리고 최근 들어 접할 수 있게 된 한국의 드라마 등을 통해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키워 나가고 있는 것이다.

2005년, 한국드라마 <해신>이 터키국영방송(TRT)에서 처음 방영되면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후 <이산>, <대장금>, <선덕여왕>, <주몽>, <상도>가 잇달아 방영되었다. 특히 최근에 인터넷을 통해 소개된 가요와 영화들의 영향은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자발적으로 생긴 한류 관련 동호회만 현재 20여개, 터키 전역에서 17만 명이 넘는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등 한류 열풍이 거세다.

특히 올해는 한국과 터키 간 국교수립 55주년이 되는 해이다. 터키에서는 올해를 '한국의 해'로 정해 한국과의 경제/문화/정책적 교류에 큰 관심을 쏟고 있다. 작년 1월, 터키 수도 앙카라에 위치한 터키 국립도서관에는 '한국 자료실(Window on Korea)'이 문을 열어 터키 내 한국학 연구 발전의 계기가 마련되었다. 같은 해 10월, 한국문화원이 개관하여 일주일의 문화행사기간 동안 한국의 전통음악과 무용, 인형극 등 다채로운 공연이 열렸고, 국기원의 태권도 시범과 한-터 문학심포지엄이 열려 한국문화의 다양성을 선보이는 장이 되었다.

이에 응답하여 올해 한국에서는 '터키문명전', '이stanbul-경주 세계문화엑스포', '터키문화주간' 등 다양한 터키관련 문화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특히 올해 2월, 이명박 대통령의 국빈방문과 '한-터 FTA 협정체결'은 한국과 터키

간의 외교적 교류가 그 어느 때 보다 더욱 공고히 되는 계기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같은 시기 열린 JYJ 영웅재중의 팬 사인회는 현지에서 불고 있는 한류열풍에 응답함으로써 폭발적으로 확산되는 기폭제 역할을 하였다.

한편 작년 터키 페네르바흐체 여자배구팀에 영입된 김연경 선수는 최고의 활약을 하며, 올해 자국내 리그에서 팀을 우승시켰으며, 최근 세계여자배구클럽에서도 MVP, 득점왕을 거머쥐며 팀을 세계최고의 팀으로 올려놓아 스포츠분야에서도 한류를 선도하고 있다.

◆ 장르별 동향

1. 방송 산업

한국 드라마의 터키 진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과거 <대장금>이 진출하여 국영 방송사 TRT를 통해 터키 전역에 전파를 뒀으며 그 이후, 주몽, 해신 등 다수의 한국 드라마와 영화들이 방영되었으나, 방영 당시 불리한 방송시간대 편성 등의 이유로 예상보다 저조한 시청률을 기록해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와 같은 한류를 기대하기에는 시기상조인 것으로 평가되는 등 적잖은 실망을 안겼었다. 비록 시대적 배경이나 등장인물, 스토리나 소재가 터키 드라마와는 많은 차이가 있지만, 영웅적인 코드나, 암투와 복수 등의 코드는 터키 드라마에서도 자주 사용되는 소재이기 때문에 터키인에게 한국 드라마는 신선하면서도 그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터키의 드라마 시장은 TV라는 거대 미디어에서도 가장 중요한 구성중 하나이기 때문에 한국 드라마의 터키 진출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슬람 문화권의 터키 사람들은 저녁 시간을 가족과 함께 보내는 일이 많고, 특히 여성들의 사회생활이 다른 서양 국가에 비해 적기 때문에 비교적 TV 드라마 시청을 많이 하는 편이다. 따라서 터키 TV에는 다른 방송 프로그램보다도 드라마가 많이 편성되어 있으며 동시에 인기도 많다. 인기 드라마들은 이른바 황금시간대, 저녁 가족 시간대에 편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즉 한국 드라마가 터키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게 되면 이를 통해 창출될 수 있는 유형 및 무형의 경제적 효과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 드라마는 터키 사람들에게 한국인에 대한 호감을 더욱 높이고 있다.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는 애청자 층을 통해 한국인, 또는 한국 문화 대한 애정도 함께 상승하고 있다.

위와 같은 드라마를 통한 한국의 이미지 상승은 직접적으로는 한국 콘텐츠가 터키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좋은 발판을 마련해 주고 있으며, 간접적으로는 한국 기업 및 상품들에 대한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기 진출한 드라마 외에도 다른 드라마들이 터키 진출을 위해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각종 미디어 산업 박람회에도 연신 한국 드라마에 대한 관심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관련 분야인 방송통신 분야에서는 작년부터 터키에서 시작한 IPTV사업 분야에서 많은 국내 업체들이 터키 현지 진출을 모색하고 있으며, 삼성 LG등 터키에 기존에 진출해 있던 기업들도 한국 드라마를 통한 마케팅 수단을 모색하기에 나섰다.

<최근 터키 공영방송(TRT)를 통해 방영되는 한국 드라마 정보>

순위	드라마 명	방송사	방송기간	방송 시간대
1	선덕여왕	TRT 1	2011년 5월 ~ 2011년 8월	월/화 13:30-15:00
2	상도	TRT 1	2011년 11월 ~ 2012년 3월	월/화 15:15-16:45

<한국- 터키의 방송통신 교류 현황>

1) 2005년 4월, 한·터키 방송교류 본격화

2005년 4월 14일부터 17일까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터키 공식방문으로 한국 터키 간 방송교류 협력의 계기가 마련됨

SBS의 <올인>이 터키의 대표적인 민영방송사인 Star TV를 통해 한국 드라마로서는 최초로 터키어로 더빙되어 18일부터 5주간 터키 전역에 방영됨. 이를 위해 4월 16일(토) 터키 이스탄불 캠프스키(Kempinski) 호텔에서 아리랑TV와 Star TV를 소유하고 있는 터키의 대표적인 미디어그룹인 Star Media Group이 방송교류협정 체결식을 갖았으며, 이 자리에는 아리랑TV 구삼열 사장과 터키 Star Media Group의 Cengiz Ozdemir 사장이 참석하여 방송교류협정서에 서명하였음

아리랑TV에서는 한국관광공사의 후원으로 터키의 대표적인 국영방송사인 TRT의 제작진을 초청하여 한국 특집프로그램 제작을 지원함. TRT 제작진은 한국의 주요 관광지인 경복궁, 인사동, 한국 민속촌, 용산 전자상가, 수원화성, 범어사, 코엑스 몰, 남대문시장, 광안대교 등을 영상에 담았으며, 한국이 세계 최대의 조선 강국임을 보여주는 조선회사의 한 곳인 대우조선과 세계 최초로 이루어질 DMB 방송을 취재하기 위해 TU Media를 방문, 한국의 IT기술력을 취재하였음. 본 프로그램은 14일 TRT 2와 TRT International을 통해 터키 전역은 물론 유럽, 중동,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북미 등에 살고 있는 1억 명 이상의 터키어권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같은 해

방영되었음

2) 2007년 3월, 한국-터키 IT 협력센터 개소

정보통신부의 제안으로 설립된 ‘한-터키 IT 협력센터’는 전자정부 구축, 통신 인프라 확충 등 공공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터키와의 IT 협력 증진 수행

2009년 3월까지 3년간 양국 정부로부터 각각 100만 달러씩 총 200만 달러의 재정 지원을 받아 전자정부 등 공동 프로젝트, 정보화 컨설팅 및 IT 분야 기술·인적 교류 등의 주요 사업 추진

3) 2008년 7월, 한-터키간 방송통신사업 협력 논의

송도균 前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터키 라디오·TV방송위원회 위원장과 회담을 갖고 우리나라 IPTV 사업 진출과 방송분야 협력 방안 논의

송도균 前부위원장은 한류드라마가 진출하기 시작한 터키에서의 한국 방송콘텐츠 확대를 위해 양국 간 방송분야 공동협력을 위한 MOU 제안

4) 2008년 6월, 국제협력진흥원-터키 기업연합(TUSKON), 방송통신융합서비스 비즈니스 포럼 개최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과 터키 기업연합(TUSKON) 공동주관으로 개최된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비즈니스 포럼에 삼성전자, POSDATA, KT, 삼성 SDS 등 민간 기업 및 KISA, ETRU 등 유관 기관과 터키의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모바일 WIMAX, IPTV, 정보보호 등의 분야에서 양국간 사업 협력 방안 모색.

5) 2010년 3월, EBS- 터키 국영방송 TRT 한국전쟁 발발 60주년 특집 다큐멘터리 ‘2010, 코레가지(Kore-Gazi)’의 공동제작 및 방송프로그램 교류 협력을 내용으로 한 양해각서(MOU) 체결

양사는 한국전쟁 발발 60주년을 맞아 터키 참전용사와 한국 민간인의 인연, 전쟁으로 아버지와 남편을 잃은 터키 가족의 사연 등을 다룬 특집 다큐멘터리를 공동 제작하고 프로그램 제작 전반에 걸쳐 긴밀하게 협력한다는 계획 하에 체결

공동제작을 시발점으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교환, 장기 대형 프로젝트 공동기획 등을 지속적으로 펼치기로 합의 및 어린이 대상 애니메이션 공동제작도 검토. 터키 민영방송 Show TV는 3월 한국을 방문해 MBC 예능프로그램 ‘우리 결혼 했어요’에 대한 포맷 제작을 협의하여 터키 판 프로그램의 제작 권리를 얻음. (CONEX 발체)

6) 2011년 10월28일, 방송콘텐츠 쇼케이스

방송통신위원회의 주최로 터키 이스탄불에 위치한 크라운플라자 호텔에서 열림. MBC 예능프로그램 <우리 결혼했어요>에 출연한 배우 이선호씨의 사인회에는 팬들이 몰려 주최 측이 통제하기도 하였다. 이날 행사에 참석했던 한 관계자는 "한류 콘텐츠에 대한 관심은 가히 상상을 초월할 정도"라고 언급하였다.

2. 영화 산업

1) 터키에서 개봉된 한국영화 현황

터키에서는 TV를 통해 한국영화를 상영하는 경우를 종종 있으나 영화관에서 상영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과거, 2004년 이스탄불 문화예술협회가 주관하는 ‘필름키미(filmekimi)’ 영화 축제에서 박찬욱 감독의 영화 <올드보이>와 김지운 감독의 영화 <장화홍련>이 상영되어 주목을 받았다. 이미 해외에서 극찬을 받은 작품이라 터키에서의 <올드보이>의 개봉은 나름대로 성공적이었지만 그 이후 기타 작품들은 번역 및 홍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흥행에 실패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2008년 한국판 느와르 웨스턴 무비를 표방한 김지운 감독의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이 터키에 판권을 판매, 개봉되었으나 충분한 상영관을 확보하지 못한 관계로 흥행에는 실패하였다. 무엇보다 가장 큰 흥행 실패의 이유는 불법복제의 증가이다. 터키는 불법 복제가 성행하는 나라들 가운데 가장 그 수치가 높다고 한다. 터키 (66%), 멕시코 (63%), 그리스 (63%), 폴란드 (58%), 슬로바키아 (50%), 이탈리아 (49%) 등의 나라들과 비교해 불법 복제를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불법 복제 시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영화 산업이 잘 되지 않고 있다고까지 말하고 있다. 비단 영화산업 뿐 아니라 음반 산업 등 문화콘텐츠 전 분야에 걸쳐 광범위하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 터키어 자막화된 최신 한국영화와 드라마를 얼마든지 다운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있기 때문에 물가대비 한국보다 두 배가 비싼 영화표를 굳이 살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이러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가장 최근인 2011년 5월 27일, 김지운 감독의 <악마를 보았다>가 터키의 대형배급사인 Tiglon와 손잡고 60여 터키 극장에서 개봉 되었다. 비록 흥행에는 실패하였으나 영화 및 예술관련 정보지로 유명한 Beyazperde의 평점 6.7/10, 일반관객의 평점은 4/5를 받는 등 좋은 평가를 받았다.

2) 2011년 한국영화 감상회

앙카라의 바트 시네마에서 열린 이번 영화제는 터키 내 한국팬클럽 회원들과 앙카라대학 한국어과 학생들에게 우수한 한국영화 감상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한국문화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하고 한국에 대한 우호적 감정을 심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주 터키한국대사관이 주최하고 앙카라 영화협회가 후원했으며 배재현 한국대사 및 터키 내 한국영화 애호가 200여명이 참석하였다. ‘제15회 순회영화제(Festival On Wheels)’에 출품된 <김씨 표류기> 및 한불 합작 영화 <여행자> 등 2편의 작품이 상영되었다.

3) 제23회 앙카라 국제영화제에 출품된 두 편의 한국 단편영화

터키의 수도 앙카라에서는 The World Mass Media Research Foundation가 주최하는 ‘23회 앙카라 국제영화페스티벌’이 3월 15일부터 22일까지 열렸다. 위 페스티벌에서는 이승민 감독의 <No.1009>와 이정진 감독, 강태영 주연의 <Ghost> 두 편의 한국 단편영화가 상영되어 터키 관객의 호응을 받았다.

4) 2011-12년도, 한국문화원에서 상영한 한국 영화 리스트

	영화명	감독	상영일
1	내 사랑 내 곁에	박진표	2011.11
2	그녀를 믿지 마세요	배형준	2011.12
3	시크릿	윤재구	
4	마음이	오달균	
5	여사장	한형모	
6	시라노 연애조작단	김현석	2012.01
7	비열한 거리	유하	
8	글러브	강우석	
9	너는 펫	김병곤	
10	집행자	최진호	
11	심야의 FM	김상민	2012.02
12	영어 완전정복	김승수	
13	마마	최익환	
14	위험한 상견례	김진영	
15	데이지	유위강	2012.03
16	내 생애 최악의 남자	손현희	
17	푸른 소금	이형승	
18	Mr. Idol	나희찬	
19	천국의 우편배달부	이형민	
20	조선 명탐정	김석윤	2012.04
-이하 진행 중-			

3. 음악 산업

1) JYJ 영웅재중의 터키 팬 사인회

2012년 2월 5일, 국립 앙카라 대학교 강당에서 현지 터키 한류 팬을 대상으로 한 팬 미팅이 있었다. 두 시간 동안 이어진 행사에서는 대화의 시간, 사인회, 기념 촬영 등이 이어졌다. 영웅재중은 이명박 대통령의 터키 국민 방문에 맞춰 터키 현지에서 한국 가수 최초로 팬 미팅을 갖는 한류 전파자의 역할을 담당했다. 팬 미팅 입장권은 600석 좌석이 30분 만에 매진됐고, 2000명이 넘는 신청이 접수돼 인기를 실감케 했다고 현지 관계자들이 전했다.

2) 'K-Pop DAY in ANKARA'

2012년 3월 5일 터키의 수도인 앙카라에 위치한 대한민국 문화원에서 터키의 한국 팬클럽 'Kore Fans'가 순수 자체적으로 주최한 'K-Pop DAY in ANKARA'가 열렸다. 200여명의 터키의 젊은이들은 대한민국 문화원 지하 강당을 빼곡히 메웠다.

3) '2011 K-Pop 경연대회 및 K-Pop 나이트' 행사

2011년 11월 26일, 주 터키 한국 문화원에서 열렸다. 기존 120명 정원으로 행사가 기획되었으나 약 250명의 많은 인파가 몰려 3층 공연장에서는 120여명의 인원이 직접 참관 하였고 입장하지 못한 이들을 위해 카페테리아에 설치된 동시 중계 영상을 설치할 정도였다.

예선을 거쳐 총 10개의 팀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는 발라드, 댄스, 걸 그룹, 랩 등의 다양한 장르의 퍼포먼스를 선보였으며 부상으로 1000리라(한화 약 65만원)와 함께 삼성 갤럭시S2를 증정하였다. 심사위원으로는 이상규 대사, 조동우 문화원장, 에르지에스 대학 Göksel 교수, 정재호 지휘자가 함께하였다.

곧 이어진 'K-Pop 나이트' 행사에 참가하는 사람에게 야광팔찌가 지급되었고 참가한 사람들은 K-Pop 음악과 함께 행사를 즐겼다.

4) 가수 관련 팬클럽의 규모

유튜브를 통해 2007년부터 터키에 알려지기 시작한 한국의 가요는 2009년부터 폭발적으로 팬클럽이 결성되기 시작했다. 현재 집계된 통계에 의하면 17개의 팬클럽에 총 회원 17만 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KORE FANS'는 회원 수 5만 명을 자랑하며, 터키 내 전국적 조직을 갖추고 있는 터키 내 최대의 한국문화 팬클럽이다.

동호회 내에서 인터넷 잡지, 독자적인 라디오 프로그램 운영, 한국 소식의 실시간 전파 및 번역 등의 일을 하는 중간 관리층만 200여명으로 추산된다. 그저 일개의 팬 클럽이라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터키 내 한류에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 밖에도 JYJ 터키, JYJ Luna Red 등 JYJ의 터키공연을 현실화시키기 위한 목적의 현지조직도 만들어져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지의 열기에 비하여 한국 가수들의 터키 공연 및 방문 등 리액션이 전무한 상황이며, 한국 가요를 좋아해도 현지에서 CD를 구입할 수 없는 것이 최대 애로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다.

<순수 가수별 팬클럽 현황>

가수	회원 수	활동내역
SS501	9,596	사진/동영상등의 자료공유, 가사번역, 커뮤니티 운영, 터키공연 현실화를 위한 활동 등
JYJ	9,523	
슈퍼주니어	5,827	
샤이니	3,436	
투애니원 / 빅뱅	1,549	
소녀시대	555	
합계	총 30,486	

출처:2012년 1월, 한국문화원 자료조사

4. 공연/전시산업

1) 한국문화원 개원 관련 일주일간 문화행사 개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오광수, 이하 ARKO)는 터키 문화관광부와 공동으로 10월 13일(목)부터 10월 22일(토)까지 10일 동안 터키의 수도 앙카라에서 ‘한국문화예술 특집주간(Korea Week in Turkey)’을 펼쳤다.

이번 프로그램은 한국과 터키 간 양국의 문화예술에 대한 상호이해와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터키 문화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한해씩 양국의 문화예술 특집주간행사를 상대국에서 개최할 것을 지난 해 합의한 데에 따라 이루어졌다.

터키 앙카라의 국립극장, 국립 오케스트라홀 등 주요 공연장과 한국문화원에서 펼쳐지는 이 행사는 문화산업 중심의 한류가 불고 있는 터키에 한국의 동시대 현대예술을 집중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행사명	일시	장소	비고
전통음악 한국의 밤	10월 13-14일 20:00	앙카라 대통령궁 심포니오케스트 라 살롱	한국 전통음악과 터키 대통령 교향악단과 협연
춤의 울음	10월 15-16일 20:00	차이올루 극장	한국무용/김복희 무용단 26인
인형극 달래이야기	10월 15-16일 15:00	앙카라 국립 시나시 극장	극단 예술무대 산 팀 9인
연극 Killbeth	10월 20-22일 20:00	차이올루 극장	극단 마방진 24인
문학심포지엄, 한.터 근대문학 100년 이해와 소통을 위하여	10월 17일 09:00-13:00 10월 18일 15:00-18:00	한국문화원 야외무대	시인 정현종, 김명인, 황지우, 나희덕, 소설가 김추영, 박범신, 박상우, 손홍규
국기원 태권도시범	10월 15일 14:00	İsmet İraz Salonu	
한국 유명작가 사진전	10월 13일부터	한국문화원 전시홀	

2) 한국 미술 전시전

한국 국가보훈문화예술협회와 터-한 문화교류협회 및 이스탄불 베식타쉬 구청이 주최한 ‘Turkey Istanbul Korea Art EXPO 2012’ 전시회 오픈행사가 2012.2.25 ~ 3.16 까지 베식타쉬 구 현대 미술관에서 개최되었다.

금번 전시회에는 국가보훈문화예술협회 소속 작가 64명의 작품 230여 점이 출품됐으며 이병석 작가(동 협회 상임고문), 김성로 작가를 비롯해 27명의 한국 작가들이 오픈행사에 참석하였다. 동 오픈행사에 베식타쉬 구청에서는 ‘케말 칠오올루(Kemal Ciloglu)’ 구의회 부의장이 참석하여 축하를 하였다.

본 행사는 한국과 터키의 수교 55주년을 기념하여 이루어졌으며, 전시장에는 연일 다양한 연령대의 관람객들이 방문하여 한국의 미술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장이 마련되었다.

3) 김용문 선생 막사발 전시전

터키의 수도 앙카라에 위치한 ‘Galeri Kaya’서는 지난 3월 12일부터 16일까지, 도

예가 김용문 선생의 막사발 전시회가 열려 많은 터키 사람들에게 막사발과 항아리의 아름다움을 선보이는 장이 마련되었다. ‘진흙의 길(Clay way - Camur yolu)’라는 이름으로 소개된 전시회에는 막사발과 해송 항아리 및 토우, 토장승 등 108점의 예술품이 소개되었다.

4) 터키국립도서관 내 한국 자료실 개관

2011. 1. 25(화) 터키 수도 앙카라에 위치한 터키 국립도서관 2층 일반 열람실과 자료 검색실 사이 이용객이 가장 많은 장소에 '한국 자료실(Window on Korea)'이 문을 열었다. 한국 국립중앙도서관이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터키인의 이해 증진 및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해 터키 국립도서관에 총 3,200여책(점)의 다양한 한국 관련 서적 및 DVD, CD 등과 서가, 컴퓨터 등의 설비를 지원함으로써 설치된 것으로 다양한 주제와 형태의 한국 관련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터키 내 한국학 연구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5. 캐릭터/애니메이션산업

1) 게임 산업

터키는 유럽에서 평균연령이 가장 낮고, 인터넷 보급률이 중동, 유럽에서 가장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나라이다. 인터넷 사용자가 전체 인구의 약 48%에 달하고 2만개의 PC방수가 증명하듯 향후 온라인게임 산업이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시장이다.

터키의 온라인 게임 시장은 최근 높아진 인터넷 보급률에 매력을 느낀 국내 게임사들이 앞 다투어 진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넥슨, 이스트 소프트, 소프트닉스를 비롯한 굴지의 한국의 게임사들은 외국산 게임을 자국 내에 서비스하고 있는 퍼블리셔와 손잡고 온라인 게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울프팀’, ‘카발 온라인’, ‘라키온’, ‘컴뱃 암즈’, ‘타이탄온라인’ 등 여러 한국산 게임들이 터키에서 이미 서비스를 개시했으며, 올해 초, 게임프릭의 '디바인소울'과 엠게임의 '발리언트'도 새롭게 터키의 게임 시장에 진출하였다. 이 중, 소프트닉스의 '울프팀'은 1인칭 슈팅게임 중에서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1) 넥슨의 1인칭 슈팅게임 '컴뱃암즈', 최초 터키어 서비스 개시

넥슨은 자사에서 개발한 1인칭 슈팅(FPS) 게임 '컴뱃암즈(Combat Arms)'의 터키어 서비스를 개시했다. 터키는 하루 사용자 수 1만 명을 기록할 정도로 유럽에서 '컴뱃암즈' 흥행을 주도하는 국가다.

(2) 이스트소프트의 '카발 온라인' 터키시장 진출

이스트소프트는 기존 유럽지역에서 영어 외 독일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에 이르기까지 12개 언어로 전 세계 2,500만 유저들에게 서비스되고 있다. '카발 온라인'의 유럽지역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게임즈 마스터즈(Games Masters)와 터키어 서비스 신규 계약을 체결하고 터키 시장에 진출했다.

(3) '울프팀'이 FPS게임 중에서 1위를 차지

소프트닉스의 온라인 1인칭 슈팅(FPS)게임 '울프팀'은 이미 중국과 중남미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 게임은 2011년, 터키에서도 FPS게임 중에서 1위를 차지하며 선전했다.

(4) 게임프릭, 액션RPG '디바인소울'이 터키 온라인게임 퍼블리셔 Joygame과 수출 계약을 체결하고 2012년 1사분기내 터키 서비스를 시작.

게임프릭은 지난 27일 자사가 개발중인 액션RPG '디바인소울'이 터키 온라인게임 퍼블리셔 Joygame과 수출 계약을 체결하고 2012년 1사분기내 터키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Joygame의 Baris 대표는 "'디바인소울'은 액션게임을 좋아하는 터키 유저들에게 좋은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게임이며, Joygame은 울프팀의 성공으로 터키에서 많은 유저를 확보하고 있는 만큼 디바인소울의 터키 내 오픈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6. 한스타일

1) 한국문화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한글 강좌, 한국음식, 태권도 강좌

올해 2월부터, 주 터키 한국문화원에서는 터키 아동들을 대상으로 무료 태권도 강좌를 진행하고 있다. 6살부터 12살 미만의 아동 30여명은 한국인 사범으로부터 태권도 및 한국어와 함께 전통예절도 함께 배우고 있다. 터키 성인들을 대상으로 3월에 열린 한국음식 강좌와 한글강좌에도 터키인들의 지원이 몰려 한국문화에 대한 터키인들의 관심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2) 2010년 12월, '한국 라면 페스티벌'

터키에서는 아직 동남아와 같은 한류의 열풍은 불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터키 내의 한국문화 팬클럽 회원은 약 2만으로 추산되며, 단순히 인터넷 상에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넘어 정기적으로, '한국음식 페스티벌', '한국 문화 주간', '한국 영화 주간' 등을 개최하고 있다. 2010년 12월에는 이스탄불을 비롯하여 다른 대도시에서 '한국 라면 페스티벌'이 개최되었으며, 이 페스티벌은 이스탄불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리고 현재 다른 도시에서도 개최되고 있다.

3) 2012년 3월, 이즈미르 세종학당 개관

한국어 및 한국 문화를 보급하기 위하여 한국 정부의 지원하에 설립되는 ‘세종학당’이 터키 앙카라와 이스탄불에 이어 터키의 제3의 도시 이즈미르에 개설되었다.

2012년 3월 9일 이상규 주터키 대사와 제말 탈룩 앙카라대학교 총장, 조동우 한국문화원장, 앙긴 우준 퇴메르 원장, 노안 규렐 이즈미르 명예 영사, 김재수 이즈미르 한인회장, 이즈르 한인교민, 세종학당 터키학생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즈미르 세종학당 개관식을 거행하였다.

크브르스 셰히트레르 거리에 위치한 세종학당은 현재 초급 3개반 총 30명이 등록하여 2명의 한국어 교사로부터 한국어를 배우고 있으며, 예상보다 많은 관심과 호응을 받고 있다.

7. 반한류 사례

해당 사항 없음

8. 기타

해당사항 없음